

■ 혼다와 도요타 자동차의 그린 자동차 기술 경쟁

-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혼다와 도요타는 그린 자동차 기술인 연료전지와 hybrid 엔진을 놓고 서로 경주를 벌이고 있음
 - 혼다는 지난해 개발한 2인승 자동차보다 모터의 무게를 25% 줄이고 출력을 22% 향상시킨 4인승 연료전지 자동차를 개발하였다고 9월 28일 발표하였음
 - 같은 날 도요타 자동차에서는 hybrid 엔진을 탑재한 미니밴을 내년 봄에 시장에 출시하겠다고 발표하였음
- 혼다에서 발표한 연료전지 자동차 FCX-V3는 최고 속력이 130 km/h로 지난해 발표된 것보다 가속 능력이 월등히 향상되었음
 - 배터리 대신 초강력 축전기(Ultra-capacitor)를 이용함으로써 정상화 시간(start-up time)을 10분에서 10초로 크게 개선함에 따라 가속 능력이 향상됨
 - 그러나 일본의 타 자동차업체에서는 이 기술이 자체기술이 아니라 Ballard Power System 社의 연료전지 기술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함
- 혼다 및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2003년 혹은 2004년에 연료전지 자동차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음
 - 그러나 연료전지 자동차의 양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
 - 혼다 연구개발센터 소장인 Tochigi는 향후 10년 내에 연료전지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높아지지는 못할 것이며 대중화에는 2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함
- 혼다와 도요타 자동차는 Hybrid 자동차 분야에서도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음
 - Hybrid 자동차의 첫 번째 양산 업체인 도요타는 내년 봄에 인기차종인 Estima 미니밴에 hybrid 엔진을 탑재하여 출시한다고 발표함
 - 혼다에서도 내년도에 인기차종인 Civic에 hybrid 엔진을 탑재하여 시장에 출시하겠다고 발표하여 선발업체인 도요타를 긴장시키고 있음

이광원(kwlee@hri.co.kr, 02-3669-4310)